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AI가 행정혁신 선도

광주시, 직원 대상 생성형 AI 활용 조사… 업무적용률 47.7%
자체 개발 ‘AI 대변인’ ‘AI 당지기’ 등 활용… 행정효율성 향상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시가 행정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하며 인공지능 전환 행정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7%가 이미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4일까지 총 2479명의 광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는 공공분야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생성형 AI의 활용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 지원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생성형 AI 활용자 중 63.5%는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한 무료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어 28.5%는 광주시가 지원하는 계정을, 8%는 개인적으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는 ‘챗 지피티(GPT)’로, 전체의 94%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 활용 목적은 ▲보고서 작성(70.8%) ▲데이터 분석(9.6%) ▲디자인(1.1%) 순이었다. 이는 생성형 AI가 문서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성형 AI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의 주요 이유는 ‘사용 경험 부족’(64.7%)과 ‘필요성 미인식’(31.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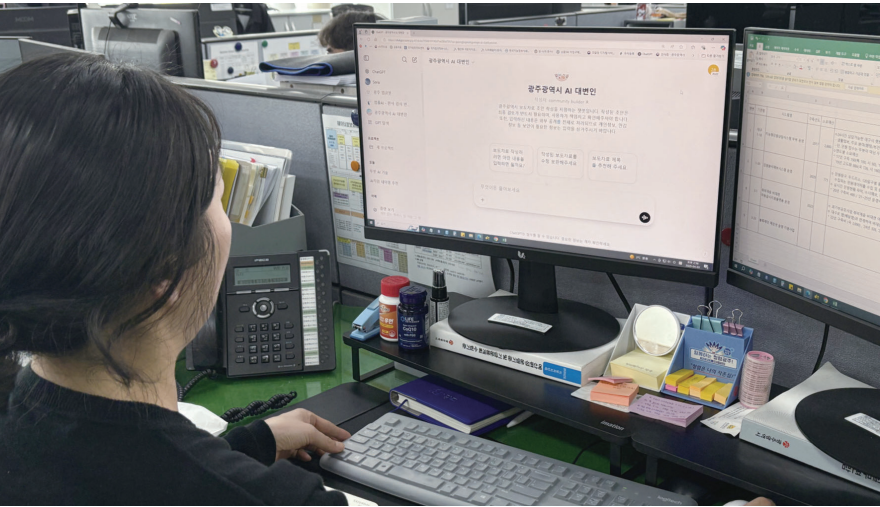
광주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 생성형 AI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전 직원의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에 실습 중심의 업무 활용 교육과 전문가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부서와 개인을 대상으로 60개 계정에 대해 디지털 신기술 구독료를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직원들이 실질적인 AI 활용 경험을 쌓고,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AI 도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 3월부터 자체 개발한 AI 직원인 ‘AI 대변인’ 서비스를 행정 실무에 적극 활용해 주목받고 있다. ‘AI 대변인’은 챗 지피티(GPT) 기반 기술에 광주시의 보도자료 서식, 작성 기준, 표현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내부 정보를 학습시켜 핵심 정보 입력만으로 보도자료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혁신적인 생성형 AI 챗봇이다.

‘AI 대변인’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광주시 공무원들이 자체 개발해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AI 대변인’의 활용을 통해 직원들은 보도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8월 특·광역시 최초로 특별 채용한 ‘AI 당지기’ 역시 당직민원의 84%를 처리하는 등 당직지기 역할을 톡톡히 하며 민원 편의성 및 행정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AI 당지기’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 총 9853건의 민원전화를 받았고, 이중 84%인 8272건을 처리했다. 이 중 대중교통 불만 신고 등 민원접수 768건, 단속응대 5941건 등 민원응대가 6709건으로 집계됐다.

‘AI 당지기’는 실시간으로 당직전화를 응대(음성·보이는ARS)한 뒤 5개 자치구, 종합건설본부 등 해당 민원 처리기관에

자동 연결하거나,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등 민원의 편의성을 높였다.

박해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업무 효율성과 창의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 직원이 디지털 전환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행정 혁신을 위한 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시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자체 개발 AI 모델의 고도화 및 새로운 AI 서비스 발굴에도 지속 투자해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혁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30일까지 전기·소화설비 운영 등 점검

전라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태양광 발전소 설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남지역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용량 1MWh 이상 태양광 발전소 중 주요 설비가 집중된 사업장을 우선해 이뤄진다.

앞서 지난 14일 전남도는 해남에 있는 300MW급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현장을 찾아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설비 운영상태, 화재감지와 소화설비 작동 상태,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관리와 모니터링 상태 등을 중점 확인했다.

현장 점검 결과 해당 태양광 발전소의 에너지저장장치는 첨단 안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철저히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저장장치 내부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시트가 배터리 모듈에 부착돼 있었고, 할로겐 화합물 정정 소화약제(HFC-125)라 불리는 질식

소화 장치도 설치됐다.

또한 유리섬유 기반의 이중벽 판넬과 화재 시 불길 확산을 막는 차단벽도 갖춰져 인접 설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외에도 제조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이 지속해서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현장 관계자와 점검단 모두 현재 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이고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의 안전 시스템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고, 예상되는 위험 요인도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모든 사업장은 예측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최첨단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수시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에너지저장장치가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교육을 한국전기공사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미래 전파·정보통신기술 신산업 거점 도약한다 혁신도시에 한국전파진흥협회 호남권 전파측정센터 개소

전라남도가 미래 전파·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거점 도약을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나주시와 손잡고 미래 신산업의 핵심기술이자 블루오션으로 손꼽히는 전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9일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 호남권 전파측정센터’ 개소식을 갖고, 호남권 전파·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기관이 적극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국전파진흥협회의 호남권 전파측정센터는 전파 환경시험, 전파 혼신·간섭 해소 지원, 제품 전파 성능 분석, 컨설팅 등 국가 차원의 첨단 전파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전남지역 전파 정보통신기술 기

업은 첨단기술과 전문인력을 수도권에 의존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호남권 전파측정센터의 나주 개소를 계기로 전파 전문인력 양성, 전파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는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광주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파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농업 및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입주해 전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우수한 전파·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드론·무인자동차, 스마트농업, 해양 IoT(사물인터넷), 디지털 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과 전파기술 융합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 유치하고,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오래 전부터 전파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남도는 지역 기관·대학 등과 함께 지역 거점 전파플랫폼인 나주전파대형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등 전파 산업 기반을 선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호남권 전파측정센터 나주 개소와 업무협약은 지역 전파산업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자체

의 우수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호남권 전파측정센터 등 지역의 우수한 전파·ICT 인프라를 활용해 전파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조건불리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남도, 어촌사회 활력위해 7월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전라남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세 달간 ‘2025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지역 어가에 연간 80만 원을 지원해 소득 보전과 활력 있는 어촌사회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도서 지역 거주 어가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

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5톤 미만 어선어업인이나 신고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업자,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다. 다만 본인의 어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천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조건불리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를 곡성